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50)(8/13/2021)

제 1 권 영적 삶에 유익한 권면들

제 25 장 삶 전체를 고치려고 열심을 냄, 5-6 절

마 7:3 -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갈 2:16 -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 6:14 -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5. 언제 어디서든 영적 진보를 이룰 기회를 만들어 내십시오. 선한 모범을 보거나 들으면, 그것을 본받기 위해 분발하십시오. 반면에, 책망 받을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보거나 들으면,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그런 일을 이미 저지른 경우에는, 가능한 한 즉시 바로잡으려고 애쓰십시오. 당신의 눈이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듯이, 다른 사람들의 눈도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마 7:3). 열심이 있고 헌신적이며 행실이 반듯하고 신앙훈련이 잘 되어 있는 형제들을 보는 것은 얼마나 즐겁고 흐뭇한 일인지 모릅니다!(엡 5 장; 시 133 편). 반면에, 자신이 부르심 받은 일들을 행하지는 않고, 제멋대로 방종하게 행하는 형제들을 보는 것은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신이 받은 소명을 따라 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일이 아닌 것들에 열심을 내는 것은 지극히 해로운 일입니다.

6. 당신이 행하였던 신앙 고백을 기억하고, 당신의 눈 앞에 선명히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모습을 그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길로 행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기 위하여 애쓰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의 삶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삶과 고난을 경건한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는 신앙인들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발견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이나 어떤 존재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시기만 한다면(갈 2:16; 갈 6:14),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모든 것들을 아주 신속하고 풍성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해설:

영적 진보는 나의 내면의 변화를 기본으로 하여 그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사랑이 없던 마음에 사랑이 가득차 오름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삶에서 나타나는 영적 진보는 언제 어느 때이든지 상관 없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야 한다. 바울의 서신 가운데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은 빌립보서는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권면했다. **빌 2:17-18 - 17.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가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바울 자신의 영혼에서 샘솟는 기쁨을 표현한 빌립보서는 그가 로마에서 가택 연금을 당해 있는 상황에서 쓰여졌다는 것이다. 성도의 영적 기쁨과 감사는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내면에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은 언제 어느 때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표현되고 실천될 수 있어야 한다. 골 3:12-14, 23 - 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영적 진보는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 지금 이루어 가는 것이다.

삶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길 중의 하나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성숙시키려는 노력, 그리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첫마음을 늘 유지하고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다. 계 2:4 -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신앙의 성숙과 성도로서의 삶의 변화는 영적 첫사랑의 회복에서 시작될 것이다. 부활 후에 낙심 속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신 주님께서 하신 일 중의 하나는 그들이 처음 주님을 만나고 부름을 받았던 순간, 그리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확인하고 믿음을 가지게 된 물고기 잡는 기적을 경험한 그 순간을 다시 체험하게 하시고 그 때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것이었다.

주님은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세례와 성찬은 온 회중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세례식은 온 교우가 보는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며 교우들의 중보기도와 영적 지도의 약속과 함께 축복을 받으면서 진행된다. 다른 사람들이 받는 세례는 이미 세례 받은 교우들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간다. 그 이유는 세례를 받는 사람의 세례를 보며 자신의 세례를 기억하고, 다시금 그 때의 은혜의 느끼며, 새로운 영적 각오를 다지기 때문이다. 성찬 역시 우리의 은혜의 기억을 새롭게 한다. 예수님은 성찬을 명령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다. 성찬은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구원의 역사와 함께 구원받은 내가 받은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다.

중요한 것은 영적 회복이다.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오고 믿음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고 여겨 질 때, 그 때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할 때이다. 우리는 오늘도 나 자신의 신앙의 순전성을 지켜내기 위해 기도하며 애써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자. 어느덧 잊고 있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억하자. 그 은혜의 기억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자. 그리고 매일 같이 새롭게 시작하자.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 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첫사랑, 첫믿음, 첫은혜를 늘 기억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3. 아직도 백신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지역들과 백성들에게 치료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 육적 치유 뿐만 아니라 참된 영적인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